

급변하는 세계경제와 그리스도인의 직업윤리

Keeping Faith at Work

데이비드 크루거 저, 임성빈 옮김, 예영커뮤니케이션, 1997.

김건주

‘직업’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지금처럼 무거운 때는 없었던 것 같다. 다소의 뼈격거림이 있었지만 우리들과 우리 사회는, 다시 말해 ‘한국’이라는 집합사 속에 융해될 수 있는 우리는 거침없이 전진해 왔었다. 때로 세계를 놀라게도 하면서 말이다.

지금 우리에게 이 책 「급변하는 세계경제와 그리스도인의 직업윤리」가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는 각자 처해 있는 처지와 환경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것 같다. 100만이라는 큰 숫자를 넘겨 버린 실업자들. 우리의 아버지, 형제, 자녀가 자신의 뜻과는 상관 없이 그런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 책이 ‘참 좋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선뜻 권하기 힘든 것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의 무게 때문이다. 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갖게 된 첫 느낌은 ‘잘 쓰여진 좋은 책이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멋있는 제목과는 별개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경험을 여러 번 했었다. 그러나 이 책은 그런 종류의 책들과는 엄격한 차별성이 있다. 대학에서 경영과 기업윤리학을 강의하는 사람답게 저자는 반드시 논해야 하는 주제들을 간결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책은 철저하게 복음주의적 입장에 서 있으면서도 결코 편협하거나 옹

줄한 책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행동을 아주 효과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책이다. 한 명의 개인에 불과한 ‘나’를 더 큰 ‘나’로 나아가도록 충동질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회 내의 독립된 그룹으로 존재하는 교회가 ‘직업인’ 혹은 ‘직업 현장’에 대해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 강조하고 있어, 교회가 세상 속의 교회로서 실질적인 자리매김을 하는 데 유익을 주는 책이다.

저자가 서문에서 친절하게도 자세히 밝히고 있듯이, 이 책은 직장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서술되었다. 전문적인 신학자나 윤리학자들이 아니라 직업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직업인들을 위한 것이다. 머리 속으로 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마 위에 땀이 흐르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또한 직업을 가진 형제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교회를 위한 것이다.

제목에서 이미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책은 급변하는 세계 혹은 세계 경제 내에서의 기독교인의 반응 혹은 대응을 다루고 있다. 물론 복잡하고 다층적인 문제 전반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직업 세계 내에서 이러한 변화들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또한 직업 자체에서 발생하는 도전들에 대한 기독교적 응답이다.

논의를 이끌어 가는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신앙인의 정체성을 기초로 하여 일터에서 신앙인으로서 행동하는 것을 구체화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과 신앙 전통에서 나온 윤리적 가치와 규범, 자원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를 위해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 교회의 지체로서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직장인으로서 행동하는 것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우리의 직장 안에서도 지켜질 수 있을까? 기독교 윤리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직면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응하고 응답하는 데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 신앙과 직업 사이의 생명력 있는 관계를 키워 나가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자는 일관되게 이상의 질문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끌어 가고 있다.

이 책은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별로 그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신앙과 경제생활 : 다섯 명의 기독교인의 사례”는 신앙과 직업 사이의 다양한 상관관계를 포괄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목사와 평신도들을 망라해 다섯 명의 인물이 소개되고 있다. 이 가상의 인물들은 미국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교 전통, 일반 직업과 사회 경제적 수준, 그리고 경제 분야들을 대표하고 있다. 다섯 명의 가상 인물들의 삶의 조각들을 통해 우리는 직업 현장의 다양한 시각을 보는 훈련을 할 수 있다.

제2장 “직업 세계 :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는 ‘안에서 밖을 보는’ 관점에서 경제 생활과 직업 세계를 논의하면서 윤리적 사고를 위한 준비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현대 세계시장 경제가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들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며 경영적인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다. 또한 현대의 경제생활에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세계적 추세들과 현대 기업조직들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반적인 변화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눈 앞의 문제들에만 집중되기 쉬운 우리의 시각이 조금은 넓어지고 ‘자기’라는 우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단을 제공하고 있다.

제3장 “기독교 윤리 : 신앙의 비전을 지키기 위하여”는 직장인을 위한 기독교 윤리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신학적, 윤리적 성경 주제들과 기독교 윤리의 다양한 전통들 중 일부를 논의하고 있다. 저자는 각 교회들의 신학적, 윤리적 전통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이점을 고려해, 하나님의 주권, 청지기직, 소명, 죄, 은총, 인간의 존엄성, 사랑과 정의, 그리고 생태학과 공동선(共同善)을 포함해 기독교 직장 윤리를 확립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규범들과 개념들만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개신교뿐 아니라 그 외 기독교적 전통을 가진 집단들을 고려하면서 이 책을 서술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저자는 기독교 사회의 다양성을 철저히 고려하면서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질문에는 하나의 정답만이 존재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도록 훈련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이 부분은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제4장 “직장에서의 기독교 윤리 : 비전을 행동으로 옮기기”에서는 바람직한 직장생활과 경제생활을 위해 필요한 윤리적인 분별과 판단의 과정과 방법을 간단히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기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현대 경제생활의 복잡성과 변화에 대한 사실 (2) 오늘의 경제생활에 필요한 성경과 신학의 윤리적 상관성을 분별하려는 도전 (3) 기업과 직장의 목표지향적인 특성 (4) 윤리적 행동에 대한 ‘다소성(more or less)’을 분별하는 것 (5) 직장 내 역할들의 복잡성과 조직 내에 있는 권력의 모호성 (6) 기업조직을 윤리 공동체로 보아야 할 필요성 (7) 윤리적인 행위를 분별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노동력 감소현상에 대한 가설적인 사례 제시. 제시된 기준들이 현장에서 추출된 것들이기는 하지만 다소 이론적이고 이상적이라는 느낌을 버릴 수는 없다. 그러나 모든 행동에 앞서 그 모든 행동의 정당한 ‘기준’을 설정해야만 한다면, 다시 말해 우리의 직업 현장에서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이 정도의 준비는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5장 “신앙인들이 직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은 21세기를 맞이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섯 가지 중요한 경제 문제와 직장 문제를 간략하게 논의하고 있다. 논의되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1) 일상적이고 전문적인 의미에서의 성실성에 대한 문제와 도전들 (2) 회사와 직원간의 관계와 서로를 향한 기대의 변화 (3) 직장 내에서의 차별과 다양성에 대한 도전 (4) 경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의 변화 (5) 환경 보호와 티행 능력에 대한 생태학적인 도전들. 이 장에서 저자는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왔던 것들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는데, 이것을 통해 우리는 화석화되어 있던 우리의 사고체계와 시각을 반성하고 교정하는 기회를 얻는다.

제6장 “직장인들을 위한 교회에서의 전략”은 신앙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직장생활에 적용하려고 할 때에 직면하게 되는 과제들을 다루고 있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 공동체라는 영역 안에서 기독교 윤리적인 반성을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이 장의 주요한 관심사이다. 저자는 특히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하나의 지역교회 내에서 신앙과 직업을 연계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만들고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들과 실질적인 지침들, 그리고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아쉬움이 크지만 아직도 겨울잠에 빠져 있는 교회에게 좋은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제7장 “직장에서의 신앙인들을 위한 전략”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공동체의 벽을 넘어서, 즉 직장에서도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직장 문화 속에서 왜 윤리가 소홀히 취급당했고 어려운 주제로 취급받아 왔는가에 대한 이유와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데에 장애물이 되는 요소들을 논하고 있다. 저자는 직장을 위한 개인적인 사명 선언서(Mission Statement)를 작성해 볼 것을 권하고 있다. 작심삼일(作心三日)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고 체면이 중시되는 우리에게 개인적인 사명 선언서를 작성해 공표하는 것이 지속적인 좋은 자극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상에서 비교적 상세히 저자의 주장을 소개한 것은 내용의 충실함과 탁월함이 그대로 독자들에게 전달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이다. 이 책이 한국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주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생각해 보자.

첫째, 이 책은 기독교적 삶을 실천하고자 노력해 왔지만 어려움에 부딪쳐 있던 우리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용기를 준다. ‘무엇을 해야 한다’는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가’는 알지 못해 거듭 실패했던 우리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이 책은 주고 있다. 적을 알아야 싸움에서 패(敗)하지 않듯이 직업 현장 및 직업 현장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경제에 대한 이해는 참으로 중요하다. ‘행하기 전에 되라’(Being before Doing)는 격언처럼 우리에게 철저히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연구하고 숙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둘째, 이 책은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에 대해 수동적인 자세로만 일관해

왔던 한국 교회를 향해 강한 도전을 한다.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분의 양들의 일상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셨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안’과 ‘밖’이라는 구분이 없으셨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의 사역에는 너무도 명확한 한계와 영역 구분이 존재한다. 세리와 창기 그 외 소외된 자들의 일상에 공격적일 만큼 적극적으로 동참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의 본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유익을 충분히 고려해도 몇 가지 아쉬움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다. 그 가운데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저자는 지금의 체제를 전부는 아니지만 그대로 긍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론 ‘부정을 위한 부정’이나 ‘전면적인 부정’은 옳지 않다. 그러나 ‘복음’과 ‘세상’과의 결코 타협할 수 없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선 지금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500여 년 전 콜럼버스의 남미대륙 발견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자본주의 세계질서’는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함께 전(前) 미국 대통령 부시의 말한 ‘새로운 세계질서’에서 완성된 것처럼 보인다. 500년 전, 거친 파도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던 경건한 카톨릭 신자인 콜럼버스는 다음과 같은 성 어거스틴의 기도를 굳게 믿었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우상들을 쓸어버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처한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콜럼버스의 이 간절한 희망과는 달리 오늘날의 세계는 하나님이 승리한 것도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그를 믿고 찬양하는 것도 아니다.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자본주의적 세계질서에서 승리한 것은 ‘시장(市場)’이요, 숭배를 받는 것은 mammon이다. 또한 우리는 ‘기술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기술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오늘날의 신(gods)들은 ‘경제적 신’(economic gods)이요, ‘기술의 신’(technical gods)이다

현존하던 사회주의의 몰락 이후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없는 것 같다. 전 지구적으로 되어 버린 자본주의적 경제에서 승리자들은 개가를 불렀

고, 동구뿐만 아니라 서구에서도 가난해진 사람들, 즉 패배자들은 세계시장이라는 점점 더 거대해지는 힘 앞에 위축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방향 감각을 상실했고, 단지 몇몇 사람들만이 오늘날 인간과 자연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의 근거는 어떤 것이며, 또 그에 대한 어떤 대안들이 존재하는가를 비판적으로 묻고 있다.

이제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새로운 세계질서로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거의 전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세계질서가 가져다 준 것은 무엇인가? 오늘날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실은 자본주의적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증오했던 무신론의 세계관과 물질을 기초로 한 시장경제 체제이다. 이러한 무신론적 세계관과 물질에 기초한 금권지배가 가져온 것은 결국 하나님 예배가 아니라 맘몬 숭배이다. 남미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 인간을 파멸로 이끌어 가는 마약 재배가 판을 치고, 남미를 착취하고 있는 미국의 젊은이들은 남미산 마약에 병들어 간다. 새로운 자본주의 질서를 갈망하던 기독교 정당들이 지배하는 유럽에서는 10년 전보다 두 배나 많은 실업자들이 알콜 중독으로 신음하고 있고, 자본주의 경제를 선택한 러시아의 경제는 이미 마피아들의 시장 독점으로 병들어 가고 있다.

오늘의 한국은 어떠한가? 돈을 벌 수 있다면 사람의 목숨까지 가볍게 여긴다. 돈을 탈취하기 위해서 부모를 살해한다. 돈을 벌기 위해 몸을 파는 아르바이트를 한다. 돈을 벌기 위해 포르노를 만든다. 돈만 벌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신자유주의적 세계 자본주의의 승리자로 불렸다. 물론 서구에서 그렇게 말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적 상승이 입증해 주는 것은 ‘개발도상국가들’도 ‘자유로운’ 세계시장의 규칙만 잘 따르면 부유한 나라들 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거에서 한국의 경제적 상승은 거의, 아니 전혀 ‘자유주의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동서대결 과정에서 서구는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 수단을 한국에 제

공했다. 무엇보다도 서구는 광주의 대량학살과 처참한 인권침해를 포함한 독재를 지원했다. 결국 한국에서의 자본주의적 발전은 ‘자유하다’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자본주의적 발전은 고도로 조정되었다. 정부는 보호주의적으로 국내시장을 보호했고, 국가자본주의적으로 대기업들을 지원했다.

그러나 새로운 세계무역기구 WTO 체제 안에서 세계시장이 무한 경쟁에 돌입하자, 한국 경제의 모순과 허약성이 동시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중소기업들이 도산했고, 마침내 대기업들이 무너지고 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 자리를 잃고 쫓겨나서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그리고 더 많은 노동자들이 언제 쫓겨날지 알 수 없는 집단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부유한 자들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들은 점점 더 가난해진다. 이것들이 새로운 세계 질서로서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들이다.

다른 나라들에서와 같이 노동자들이 세계적 자본시장의 압력 하에 들어 가게 되었다. 1996년 12월 26일자 노동법 날치기 통과를 둘러싼 대결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다. 그것은 세계경제, 다시 말해 세계적 자본시장으로 우리의 노동자들이 들어가는 하나의 징표였다. 노임의 덤핑, 변형근로제, 즉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는 열악한 직업과 용이한 해고는 세계화된 자본이 이윤을 향상시키고 전세계의 이동 불가능한 노동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수단이다. 전세계적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 혹은 ‘대안 사회’가 모색되고 실험되는 이러한 시기에, 오늘날을 사는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교회상과 그리스도인상의 모색과 함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가리켜 혼란의 시대 또는 과도기의 시대라고 한다. 아마 한국 사회의 윤리 현실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라 생각한다. 혼란의 핵심은 가치 혼란이다. ‘어디에다 가치를 두느냐?’는 데 대한 혼란이다.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할 때 가치 혼란을 든다는 것은 가치 문제가 한 사회를 위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가치 문제는

참으로 중요하다. 사람은 동물과 달리 가치를 추구하며 산다. 가치 없는 삶은 살아도 삶으로 보지 않는다. 삶은 삶다워야 한다. 사람은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사람다워야 사람 대접을 받는다. 바로 이 '다움'이 가치를 나타낸다.

윤리는 '사람이 되는' 문제다.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이 되도록 태어났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문제는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는 문제와 얽혀 있다. 한 사회에서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는 기준이 대부분 그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갖는 '사람의 사람됨'의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그것이 현실이다. 하나님나라가 아닌 현실 사회는 모든 경우 사람을 사람이라는 이유로 목적으로 존중해 주지는 않는다. 모든 사람 내면에 들어 있는 기준과 한 사회에서 실제로 사람 대접하는 기준이 다르다. 사람의 내면에 있는 사람다움의 기준이 사회가 돌아가는 사람 대접의 기준이 되도록 그 사회 구성원들이 얼마나 노력해 왔는가에 따라 사회 정의의 수준이 정해진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와 교회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기 너무 힘든 사회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동안의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고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이 책은 많은 유익을 주리라 믿는다. 오늘날 자본주의의 모순에 고민하는 모든 기독교 지성에게 일독하기를 권한다.



■ 김건주 ■

한양대학에서 화학공학 전공. 충신대 신학대학원 졸업. 21세기 기독교문화포럼 회무,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전문강사 및 청년리더십 지도교역자 위원, 서울시 청소년사업관 상담원, 섬김과 나눔의 공간 간사, 기독교미술 연구회, 국제창조사학회 회원, CUP출판 자문위원. 현재 성덕중앙교회 기획실장으로 재직.